이효석 소설 속 어휘들의 감칠맛
— <메밀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

민충환 문학평론가

1

>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팔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거론될 때마다 인용되는, 허 생원과 조선달 그리고 동이가 대화로 가기 위해 밤에 산길을 넘는 장면이다. 김동리가 이 작품을 가리켜 '소설을 배반한 소설'이라 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의인과 비유, 공감각적인 표현 등 온갖 수사법이 동원되었지만 과장하지 않고 아름다운 어휘들로 한편의 잔잔한 수묵화를

연상시킨다. 그렇기에 이 소설을 단순히 '순수 소설'이란 개념을 넘어 '분위기 소설' 혹은 '서정 소설'이라 극찬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이 장면에 보이는 시적인 아름다운 문체와 묘사 기법만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작품 전편을 들여다보면 이와 유사한 혹은 문체와 묘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바로 소설 전편에 깔려 있는 이효석의 감칠맛 나는 어휘들이다.

2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1936년 ≪조광≫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그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한국 현대 소설의 수작 중 하나라고 평가될 만큼 작가의 문학 세계가 잘 응축되어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허 생원은 봉평에서 하룻밤 정을 나누고 헤어진 성 서방네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 장을 거르지 않고 찾는다. 봉평 장판이 일찍 끝나고 술집에 들렀다가 젊은 장돌뱅이인 동이가 충줏집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심하게 나무라고 따귀까지 때려 내쫓는다.
> 그날 밤, 다음 장이 서는 대화까지 조 선달, 동이와 더불어 밤길을 걸으면서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인연을 또 들려준다.
>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던 끝에 동이가 자신의 집안 사정 이야기를 한다. 허 생원은 사생아를 낳고 쫓겨났다는 동이의 어머니가 바로 자기가 찾는 성 서방네 처녀가 아닐까 생각한다.

허 생원이 물을 건너다가 빠지자, 동이가 건져 업는다. 동이의 등에 업혀, 어머니가 아비를 찾지 않더냐고 물어보니, 늘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과 의부와 갈라서 제천에 머물고 있는 어머니를 동이는 가을쯤에 모셔올 것이라 한다.

허 생원은 갑자기 예정을 바꾸어 대화 장이 끝나면 동이의 어머니가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혈육의 정을 느끼며 동이를 바라보던 허 생원은 동이가 자기처럼 왼손잡이인 것도 확인한다.

줄거리에서 보듯이 〈메밀꽃 필 무렵〉은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가는 장돌뱅이 허 생원과 서로 입장이 비슷한 조 선달 그리고 동이, 세 사람이 봉평에서 대화로 가는 밤길을 걸어가면서 전개되는 하룻밤의 이야기이다.

허 생원은 젊은 시절 성씨 처녀와 하룻밤 사랑의 인연을 맺었는데, 이 회고담은 달밤의 메밀밭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그려진다. 그 이야기와 함께 세 사람은 자연과 일체감을 이루고, 허 생원은 자기와 똑같은 왼손잡이 혈육까지 만나게 된다.

중심인물은 '허 생원'과 '동이'이다.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주된 사건은 허 생원이 회고하는 옛사랑과 동이가 말하는 그의 가족사에서 은연중에 동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느끼는 대목이다. 동이의 어미가 산다는 제천으로 가자는 것, 그리고 허 생원의 나귀가 새끼를 가졌다는 것은 나란히 미래의 희망이 된다.

위에 제시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는 배경이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배경이 작품을 서정적이고, 시적인 경지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메밀꽃 핀 산길의 달밤은 낭만적인 자연 배경이자 허 생원이 옛이야기를 꺼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달이 비치는 메밀밭과 산길이 순박한 인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허 생원과 동이를 결합시킨다. 봉평 장터와, 봉평에서 대화에 이르는 메밀꽃이 흐드러진 밤길, 메밀꽃 핀 개울가는 단순한 자연적 정경에 그치는 배경이 아니라, '인생의 인연'을 상징하여 작품 주제에 직접 연결된다.

간결한 대화와 사실적인 문체, 운문과 산문의 장점을 잘 살린, 시처럼 부드러운 서정적 분위기,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삽화를 배치한 치밀한 구성, 암시와 추리의 기법, 여기에 '아버지 찾기'라는 원형을 드러냄으로써 떠돌이 삶의 애환 속에 펼쳐지는 인간 본연의 애정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3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메밀꽃 필 무렵〉의 여러 특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작품 전편에 산재한 어휘들이다.

>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여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뭇군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윳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군 **각다귀들**도 귀치않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에게 낚아보았다.

소설의 첫 장면이다. 1936년에 발표되었다지만 근 80년이 지난 지금 읽는 데에도 전혀 걸림이 없다. 사실 1936년이면 우리들의 생활 언어 속에 아직 고어 투가 없어지기 전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고어 투 어휘나 문체 혹은 어려운 한자 성어나 국한문 혼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어휘의 현대성이다.

사실 이효석의 단편 중에는 〈장미 병들다〉, 〈화분〉과 같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도 많다. 이에 비해 〈메밀꽃 필 무렵〉은 지극히 토속적인 사건을 그린다. 그러나 어휘 면에서는 도시적이라 할 작품들과 마찬가지의 현대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이 작품이 장돌뱅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첫 장면에서부터 감지할 수 있다. 사건이 장돌뱅이들의 애환이듯이 위에 제시한 장면의 강조한 부분과 같이 문장과 어휘가 이미 장돌뱅이들의 것이다. 결국 사건과 그 사건을 서술하는 어휘를 결합시켜 '떠돌이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그런데 위에 제시한 부분만이 아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전편에 걸쳐 이효석의 독특한 어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로채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다.
- **가스러지다:** 짧은 털이 빳빳하고 거칠게 일어나다.
- **가제:** '갓'의 방언.
- **각다귀:** '남의 것을 뜯어먹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 **감쪽같이:**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표시가 흔적이 없이.
- **개운하다:** 몸이나 마음이 상쾌하여 가뜬하다.
- **거나하다:** 술이 많이 취해 있다.
- **거슴치레하다:** 눈의 정기가 풀리고 감긴 듯하다.

- **결김:** 화가 난 나머지.
- **고깃마리:** 약간의 고기.
- **고리짝:** 고리나 대오리로 엮어 옷이나 천을 넣도록 만든 상자.
- **고주:** 고주망태. 술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렇게 된 사람.
- **굴레:** 마소의 얼굴과 목을 얼러서 얽은 줄.
- **궁싯거리다:**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 **글르다:** 그르다. 어떤 일이나 형편이 잘못되어서 잘 될 가망이 없다.
- **꼴사납다:** 보기에 아주 흉하다.
- **꼴에:**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 **꽁무니:** 맨 끝.
- **나귀:** 당나귀.
- **나꾸다:** '낚다'의 방언. 낚다 – 갑자기 붙들거나 잡아채다.
- **난질꾼:** 술과 색에 빠져 방탕하게 놀기를 잘하는 사람.
- **낫세:** 나쎄. 나쎄 – 그만한 나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놈팽이:** 놈팡이. 놈팡이 – '사내'의 낮은말.
- **닦아세우다:** 심하게 나무라거나 꾸짖다.
- **달음질:** '달음박질'의 준말. 급히 뛰어 달려가는 걸음.
- **대거리:** 상대방에 맞서서 대드는 것.
- **대견하다:** 대근하다. 대근하다 – 힘들고 만만하지 아니하다.
- **대궁:** '대공'의 방언. 대공 – 식물의 줄기.
- **돈푼:** 많지 않은 돈.
- **둔덕:** 작은 언덕.
- **딴은:** 따지고 보면. 하기는.
- **몽당비:** 끝 부분이 아주 많이 닳아서 자루만 남은 비.

- **무던히:** 상당히. 어지간히.
- **바:** 볏짚이나 삼, 칡 따위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줄.
- **바리:** 짐을 등에 실은 마소의 수에 따라 세는 단위. 여기서는, '약간 수의 바리'를 나타냄.
- **바스러지다:** 바서져 좀 잘게 되다.
- **반하다:** 홀린 듯이 마음이 끌리다.
- **벌름거리다:** 코를 계속해서 벌렸다 오므렸다 하다.
- **부락스럽다:** 거친 데가 있다.
- **비죽이:**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 **빗디디다:** 디딜 자리를 바로 디디지 못하고 다른 자리를 잘못 디디다.
- **산허리:** 산중턱.
- **서슬:** ~는 바람에.
- **선머슴:** 차분하지 못하고 거칠게 덜렁거리는 아이.
- **술기:** 술에 취한 기운.
- **숫기:** 수줍어하지 않는 활발한 기운.
- **쓸리다:** 물체가 맞닿아 문질러지거나 스쳐서 상하다.
- **알뜰하다:** 실속 있게 절약하다.
- **암샘:** 암컷이 일정한 시기에 교미욕을 일으키는 일.
- **앙칼지다:** 매우 앙큼하고 날카롭다.
- **애숭이:** 애송이. 애티가 있어 어려 보이는 사람.
- **애잔하다:** 몹시 잔약하다. 애처롭고 애틋하다.
- **앵돌아지다:** 성이 나서 토라지다.
- **약빠르다:** 약고 눈치가 빠르다.
- **어둑시니:** 청맹과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 **어수선하다:** 사물이 뒤섞여 어지럽고 수선스럽다.
- **어지간히:** 어지간하게. 꽤 많이.
- **얼금뱅이:** 얼굴이 얼금얼금 얽은 사람.
- **얼버무리다:** 말꼬리를 흐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대충 말하다.
- **외줄:** 단 한 줄.
- **이지러지다:** 한 귀퉁이가 떨어지다.
- **자나깨나:** 늘.
- **장난꾼:** 장난을 심하게 치는 사람.
- **장도막:** 장날과 장날 사이의 동안.
- **장돌뱅이:** '장돌림(여러 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수)'을 낮추어 이르는 말.
- **장돌이:** 장돌뱅이.
- **줄달음:** '줄달음질'의 준말. 한숨에 내처 달리는 달음박질.
- **짜장:** 과연. 정말로.
- **쫄딱:** 더할 나위 없이 아주.
- **철없다:** 사리를 분별할 만한 지각이 없다.
- **축:**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뉘는 사람들의 부류.
- **츱츱스럽다:** 츱츱한 데가 있다. 츱츱하다 – 하는 짓이 아니꼬울 만큼 인색하거나 염치가 없다.
- **타박거리다:** 좀 힘없는 걸음으로 자꾸 나릿나릿 걷다.
- **탐탁하다:** 태도가 마음에 들고 믿음직하다.
- **투르르거리다:** 말이나 당나귀 따위가 주둥이 내떨며 투레질하는 소리를 하다.
- **패:** 어울려 이룬 사람의 동아리.
- **하염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 **해깝다:** '가볍다'의 방언.
- **햇발:** 사방으로 뻗친 햇살.
- **허덕이다:** 팔다리를 마구 움직이다.
- **허비적거리다:** 자꾸 허비어 헤치다.
- **헐레벌떡거리다:** 숨을 자꾸 헐떡이며 가쁘게 몰아쉬다.
- **후리다:** 그럴듯한 방법으로 사람을 꾀어 넘기다 혹은 휘둘러서 때리다.
- **훗훗이:** 훗훗하게. 훗훗하다 – 훈훈하여 약간 갑갑할 정도로 덥다.
- **흐뭇이:** 마음이 느긋하고 만족스럽게.

이러한 고유어들이 적재적소에 쓰이면서 아름다운 문체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장돌뱅이라는 토속적 인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의성어와 의태어의 유효적절한 쓰임도 지적할 수 있다.

- 더운 햇발이 벌여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혹혹** 볶는다.
-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
-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래 **비슬비슬** 멀어졌다.
-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

사실 소설 창작 기법이란 측면에서는, 소설 문장에 가능하면 의성어와 의태어를 쓰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전화가 따르릉하고 크게 울렸다’고 서술하면 독자는 자신만의 다양한 전화벨 소리를 상상하지 못하고 ‘따르릉’으로 국한한다. 그렇기에 ‘전화벨이 크게 울렸다’보다 오히려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데 위에서 강조한 부분에서 보듯이 이효석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딸랑딸랑’과 ‘달랑달랑’은 자음 하나의 차이이지만 그 의미상의 차이는 엄청나다. 이 의성어가 ‘방울소리’ 그리고 ‘뛰는 모습’과 결합하며 경쾌함과 가벼움을 적확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메밀꽃 필 무렵〉에 나타난 아름다운 고유어는 가히 이효석 특유의 감칠맛 나는 어휘들이다.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한 청각적 혹은 시각적 자극은 이 작품을 읽는 또 다른 맛이라 할 수 있다.

※ 기존의 논의와 자료들은 이병렬의 블로그(http://lby56.blog.me/150032054648)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였으나, 일일이 인용 표기는 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